

## 14.하나님의 다림줄

아모스서 7장 7절~8절 "7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오늘부터는 영적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걸으려는 아무리 신앙적인 모양과 모습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영적분별력 혹은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갖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의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으로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꿰뚫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영적인 안목에 있어서는 장님인 것을, 완전히 눈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분별력 중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진 교회 둘째,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셋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질 수 있다.

### 첫째, 하나님의 의도

아모스 7: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담이 있고 하나님이 서 계신데 손에는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그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고 그 옆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다림줄에 똑바로 맞추어서 세워진 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환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7장 8절에 보면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똑바로 세워진 벽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넘게서는 이 다림줄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 용서치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요, 목표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건물만 하더라도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져야지만 건물이 튼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질 때 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잖아요,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잖아요.

비결이 무엇이나? 가정이건, 개인이건, 교회가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얘기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이 신약에 세워질 성전의 예표입니다. 신약에 세워질 성전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교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모세에게도 그랬고,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실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실양대로 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얼마나 강조되었느냐 하면 성막을 지으면서도 무엇을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겹으로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 번했으면 될 것인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규빗으로 하고 몇 규빗으로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뭐는 몇 규빗으로 하고 어떻게 했더라. 성경에 한말 또 하고 한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즐려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느냐면?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 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셨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만큼 영광이 임재했어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식양을 주셔서 다윗은 짓지 못하게 하시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솔로몬이 그 식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 똑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곳을 방문하셔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제사를 지내지 못할 만큼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의 예표라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구약 때부터 건물 성전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참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구약 때부터요. 신약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럼 예표인데, 뭘 보여 주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져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럼 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느냐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으로 그곳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널리 펼쳐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못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이건 우리 가정이건 혹은 우리교회건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 맞추어 세워지기를 추구해 왔습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된 관심사와 우선순위는 그것이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때로는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은 간 곳이 없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게 될 때에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특별히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의 임재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열망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영어로 sovereignty, sovereign God) 아시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에게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만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길만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막연히 잘 봐주실 것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느 자선단체에 헌금을 드렸다면 나는 뭔가 하나님의 계시라면 구원도 받을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까 뭔가 복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여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길만 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러한 부분을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사데교회를 보시죠.

요한계시록을 보시죠. 3장 1절과 3절上 "사데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광 일곱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가 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개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우리가 상당 기간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한 것이 포도나무교회 홈페이지에 올라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를 살펴볼 때마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만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데 교회를 보십시오. 사데 교회는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이란 말은 다름 말로 하면 명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명성을 가졌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살았다 하는 명성을 갖습니까? 그냥 개척교회로서 성도 한 두 서명 얹혀 놓고 침침한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그저 모이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사람들 모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살았다는 명성 있는 교회라고 받아들입니까? 안 그러죠. 살아 있다는 명성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매우 활발한 많은 활동들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죽었다고. 자기들이 보기에 사람은 보기에 살았어요.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명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것이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죽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한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은 정작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멀었는데 그 사실도 모른다고' 얼마나 다른 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아야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것처럼 이사야 1장에 보십시오. 그들은 그 많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모든 절기와 대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재물, 무수한 재물, 살진 짐승,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양 그 많은 재산.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고, 많이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본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 비춰볼 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거짓신앙체계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사실을 아나요? 왜요? 모르죠!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 많은 헌신과 그 많은 봉사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이것으로 보아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외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알면 돌이킬 수 있죠.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면 본인은 정작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 종교지도자들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도 그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림줄의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 세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어 질 수 있다.

세 번째, 이처럼 다림줄이 중요한데, 가장 무서운 점이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보세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만 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작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해 여러 번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무서운데 문제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그 말이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말을 요즘에 점점 이해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일 날 제가 양복 안 입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 양복 안 입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경건함이 외부적인 어떤 종류의 옷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거기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통치할 때만 거룩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잘 못된 이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다. 또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가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 드렸는데, 그 성도들을 압니다만 방문한 분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기독교 TV 보니까 요즘은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양복 안 입는답니다. 기독교 TV에 나오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까만 우리나라의 우수한 큰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도 양복 안 입고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이 하건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성경이 중요하니까.

여담 : 근데 이제 따라오나 봐요. 그 분들이 저를 따라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에 우리 강대상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마치 의식하는 불당처럼 종교심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성도들과 인식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치 성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저는 이쪽에서 내다보고 있고, 여러분은 그쪽에서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격이 다른 나는 높고, 여러분은 낮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치우자고, 이것은 서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웠잖아요. 요즘은 강대상 다 적어진 것 아세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리고 요즘은 다 투명하게 하는 것 아세요? 교류를 가깝게 한다는 의미에서.

다림줄이 무엇인가?

다림줄만 해도 그래요, 다림줄만 해도 옛날에는 다림줄 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았다!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림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거든요. 요즘 많

이 인식되어 있죠. 그래서 다림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새로운 일을 하면 신선하다 그러는데, 작은 교회 목회자가 새로운 일을 하면 성경에 비취보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다림줄은 뭐냐 하면, 다림줄은 어떤 분이 기도해서 봤다는 희한한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당연히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림줄은. 다림줄은 어떤 사람이 감동받아 받는 게 아닙니다. 다림줄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다림줄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냐 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들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고, 성경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지금 시편 22편인데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다 가리어서 안 보인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가리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올바르게 하는데, 그게 가리어져 버리니까 올바르게 알 수 없죠.

여러분, 건물 짓는 데요 다림줄 없이 지어보세요. 아무리 잘 짓는 사람도 뼈들뼈들밖에 안 돼요.

선을 긋는데 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그러도 절대로 똑바로 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림줄이 가리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올바르게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결국 헛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경험했던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많은 예배와 제사와 헌신을 드리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다림줄이 가리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림줄이 가리어지면 본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작 심판을 얘기하셔도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걸 깨닫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고, 예레미야를 거짓선지자로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죠. 예수님 시대에.

근데 말씀 그대로 됐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어차피 생각하니까!

심판이 오는 대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심판 가운데 있는 대도 몰라요. 심판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삶 속에 있는 대도.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나옵니다만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 온갖 후욕, 싸움, 다툼, 미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온갖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르죠.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과 어떠한 실제적인 관계도 없으면서도 . . . . .

자! 그럼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다같이 찾아보시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자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 아니하였으리라"** 이 비슷한 말씀이 또한 마태복음 15장엔 가도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옵니다.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에는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고한 자를 정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돼요. 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도 몰랐구나!'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외우는 것은 그들의 기본이었어요. 성경을 알뿐만 아니라 랍비들의 해석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공부할 때 성경도 공부하지만, 신학교에서는 성경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이고요. 성경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 주석, 어느 유명한 학자의 해석, 주석 그걸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 쓴다는 게요. 제가 프리스톤에 박사과정 갔다가 학교가 저하고 안 맞아 그냥 두고 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박사학위 받으면 뭐와 같으냐 하면 바닷가에서 모래알 한 알 하나 चु는 것과 같아요. 박사학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오는 한 단어의 배경이 뭔가 그거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습니다. 그럼 그걸 연구하려면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게 쉬운 줄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걸 연구하려면 이 책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 책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이 책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학자들의 해석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에 쓰여진 어떤 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의 성경의 용법뿐 아니라, 그 당시의 문헌들에 나오는 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에 사회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연구하면 박사 되는 겁니다. 한 구절 연구하면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 한 알 चु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석사를 졸업하고 난 후 박사학위 받는데 7년이 걸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 . . . . 성경을 알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랍비들의 해석을 알고요, 배경을 알고요, 언어를 알고요, 문화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 6장6절에 나오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걸 왜 몰라요. 그럼 뭘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원한다. 그걸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건 초등학교도 읽어보면 압니다. 읽어보면 . . . . .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

해서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못 본다. 그랬잖아요. 눈이 가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이런 말도 몰랐네. 이렇게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럼 뭘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보시면 “그 말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랬죠.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는 말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 다시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몰랐다는 얘기에요? 말씀드린 데로, 그건 초등학교들도 안 다니까요. 여러분 아이큐 반만 되도 한번 읽어보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럼 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림줄이 가리워진 겁니다. 이게 성경 아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알면서도 다림줄이 가리워져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몰랐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인지 저들이 몰랐다고요? 그것도 여러분 너무 속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쉘마라 그래요. 그걸요. 쉘마라하면 슈마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 말이 슈마예요. 히브리성경에 슈마이 이스라엘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쉘마라 그래요. 쉘마란 말이 뭐냐?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쉘마라 그래요. 쉘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구절이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구절을 문설주에 써 붙여 놓고요.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요. 손에 붙이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미국에 사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그 빵모자에 그 구절을 넣어가지고 다니고요. 지금도 자기들의 집 앞에 다윗의 별 속에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왜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교육시킨 게 그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가장 기본이었어요.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걸 바리새인들이 몰랐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주일 학생들도 알 내용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박사라니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가르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한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보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누구보다 철저히 십일조하고, 누구보다 철저히 구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 모든 걸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식을 잘하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의미가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하나님 안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본인들은 자기생각대로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천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평신도들은 놔두고라도 목회자들만 한 오만 명이상 될 텐데 목회자들에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안 사랑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게 성도를 위한 기도고, 맨 날 기도하는 게 교회를 위한 기도고, 새벽기도부터 밤늦게까지 교

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의미하는 바로서 진짜 오늘날 성도들이 10%만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오늘날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10%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러니까 10%의 목회자들만이라도 성경이 의미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안 사랑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의식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한단니까요. 아까 살펴본 대로 . . . . . 주일날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십일조하고, 골프 치러 안가고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골프 치러 안가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을 위해 전존재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 . . . . 여기보시면,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어떻게 눈이 가려질 수 있는가가 보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집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오늘날 누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합니까? 주일성수 철저히 하고, 십일조 철저히 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다 이게 오늘날 전통에 따르는 거지요. 성경에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세운 권위자에 대하여 순종하는 건 당연히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건, 다른 권위자건, 또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 기껏 폼아봐야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말해 보세요. 열개도 안돼요. 그 열개 몇 가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아무리 폼아도 열개가 안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613가지로 즐였다니깐요. 큰 것만 해도 . . . . . 그걸 철저히 지켰단니까요.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겠어요. 본인들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은. 열가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613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우리가 이 시대니까 그렇지 이 시대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다니며 먹는 걸 왜 저들이 반대한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이 밀을 비비면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대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분별력이 가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가리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분별력을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살펴봅시다마는.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지면 자신은 자기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더 열려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의 회복이 없이 어떠한 신앙이나 예배나 교회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흠을 베푸셔서 우리 뿐만 아

나라 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선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 삶과 교회와 이 나라 전체에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